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 2차/8월 임시회의록

일시 17/8/17(목) 14:00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공용사무실

기록 김기민(운영위원회 간사 겸 사무처장)

- 운영위원 명단 및 성원 확인

구성 / 총원 (10명)	출석	위임	불참
1. 김희자 (의장, 주민자치분과위원장)	○		
2. 류지숙 (교육분과위원장)	○		
3. 박정근 (건강분과위원장)	○		
4. 배정학 (복지분과위원장)		○	
5. 이윤임 (추첨직 운영위원)	○		
6. 이종안 (부의장, 주민자치분과 추천)	○		
7. 전미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		
8. 전영지 (교육분과 추천)			○
9. 차정화 (건강분과 추천)			○
10. 홍수만 (부의장, 복지분과 추천)	○		
<b>합 계</b>	<b>7</b>	<b>1</b>	<b>2</b>

※ 총원의 과반수(5인) 이상 출석시 성원

(간사 : 김기민 사무처장 / 참관 : 한정혜 주민자치분과 간사)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진행 현황 공유 (안건지 참조)

- 1차 협의조정회의 참석자 의견 공유

- 김희자 의장 : 그 동안 노력하고 애써온 시간이 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홍수만 부의장 겸 컨소시엄 대표단체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 플랫폼 사업과 협의회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현재 성북의 시민들이 만들어온 과정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확장된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시민협력플랫폼을 더 열린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며, 그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 김기민 사무처장 겸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책임(예정)자 : 개인적으로는 사업 책임자 말고 싶지 않아졌다. 1차 협의조정회의 참석해서 느낀 바는, 그 동안 성북 지역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온 흐름과 활동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그런 인식에 기초해서 사업 신청서를 수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감이 든다. 다만 제 개인이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뜻에 움직일 것이다.

- 안건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주체로서 협치성북시민협의회의 적절성 여부
  - 타 지역에선 시도해본 방식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운영기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신청한 게 문제가 되는 상황. 플랫폼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지향했는데, 성북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것. (김희자)
  - 외부 관점에서 보면 협의회를 네트워크 조직이 아닌 하나의 신생 단체로 볼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전미희)
    - 작은 단체들이 모여서 큰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 협의회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모인 조직인데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라면 뭔가. (이윤임)
    - 보통 하나의 단체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면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는 게 어려워서 틀을 갖추기 힘들지 않은가. 근데 우린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한 것. 오히려 칭찬받을만한 일 아닌지. (이종안)
    -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서울시가 의도했던 바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 완전히 상반된 형태로 간 상황이다. 우리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신청에 앞서 조직을 구성하여 형태를 띄고 시작을 하는데, 시 당국은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것으로 구상한 것. 현재로서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전미희)

- 협의조정위원들은 우리에게 칭찬을 먼저 해주는 게 좋지 않으나.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먼저 칭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종안)
- 협치서울지역협의회에도 성북의 소통책임자들이 참석해서 상황을 공유했고, 서울협치추진단 협치지원관들도 총회에도 참석했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전미희)
  - 작년 말부터 올해 초반에 성북구청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민관 TFT를 조직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 같다. 민간의 조직활동 과정을 한창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처럼 있다가 불현듯 TFT 구성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 싶다. 만약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겼다면, 총회를 미루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김희자)
- 처음부터 이 구조를 우리가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또 관에 휘둘리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는 주민들을 가지고 논 것 밖에 안된다. (박정근)
-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서 문제인 상황이다. 조그맣게 시작해서 차츰 확장해나가야 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틀을 만들어놓은 상황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서 안에 보여줘야 한다. (전미희)
- 시에선 어떤 염려를 갖고 있는 건지? (이윤임)
  - 지역 안에서 특정 단체가 사업을 주도한다는 인식이 주관 기관 입장에서나, 추진하는 협의회 입장에서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염려를 갖고 있는 것. (김기민)
  - 협치조정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서류만으로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컨소시엄 단체도 네트워크고, 협의회도 네트워크다. 반대로 보면 하나의 단체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별 의미 없는 지적이다. 타 자치구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참석했던 협의조정위원 몇몇 분은 서울시의 지역공동체나 협치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들이다. 우리 사업신청서에 기존에 해왔던 서울시 정책들의 문제나 개선 사항들과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 (홍수만)
- 일은 한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정책, 제도, 운영 매뉴얼에 맞춰 원원해서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지역 상황이 다 다르다. 지금 성북구는 활동 자체가 주거나 받거나 얻는 활동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본다. 구청장 생각이 열려 있고,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것도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상황인 것. 다른 자치구는 이에 못미칠 수 있다. 그럼 주관 기관 입장에서는 표준, 공통으로 갈 수 있는 기본 지침에 맞춰 갈 수밖에 없을 것. 사업신청서를

보완하는 것이 꼭 포장이 아니라, 성북구 자체의 특수한 흐름이 있으니 그것을 이야기하면 된다.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따돌림 당할 이유는 없다. 그 쪽 입장에서도 성북의 활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 개척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쳐줘야 하지만, 여기만 두둔해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느리게 오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 자체는 앞서 가는 사람을 원하기 보다 함께 가는 것을 원한다고 본다. (류지숙)

- 보조를 맞추자는 건가요? (이윤임)
-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류지숙)
- 지난 수 개월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정리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제출했는데, 그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 (박정근)
- 만약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뭔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상대는 수위를 조정해주길 바라는 것이 있다. 그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김희자)
- 사업 계획은 미리 다 짜놓은 게 아니라 나이브하게 수립한 것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들에 따라 2~3년차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 조직 구성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협의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계획에서 협의회의 존재를 삭제하여 수정할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협의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되, 플랫폼 사업을 통해 더 포괄적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줄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홍수만)
- 지금까지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수정을 해서라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둘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이후의 과정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전미희)
  - 솔직히 말해 황당하다.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을 분리하라는 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류지숙)
  - 협치성북시민협의회로 온 것이지,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으니 협의회의 본질을 지키자. 그 쪽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박정근)
  - 이제 사업 접수가 종료되었고, 더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다. 여기서 결정할 것은 플랫폼과 협의회를 분리하여 갈지, 아니면 포기할지다. 플랫폼 사업 신청은 이제 할 수 없다. 만약 플랫폼 사업 신청을 철회하고 포기한다면 우리가 계획한 사업들을 사업비 없이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럴 역량과 재정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야 한다. (전미희)

- 어차피 분리시켜 간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협치성북시민협의회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서류에서 숨기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어쨌든 이 사업은 선정 여부를 떠나 성북구의 민간 단위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을 위해 협의회를 빼고 갈 필요 없고, 그걸 빼는 게 더 우스운 일이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홍수만)
- 사업 선정되려고 협의회 빼고 갔다는 말들이 나올 것. (김희자)
- 우리의 고유한 색과 브랜드를 갖고 가면 된다. (류지숙)
- 결정 사항
  - 협의회와 플랫폼 분리는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이다. 우리가 만들어온 시간이 있고, 협의회가 해온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관 기관의 입장에 맞춰서 사업 추진 주체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차 협의조정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조언 중 수용할 건 수용하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지켜서 사업신청서를 보완하고 제출한다.
  - 네트워크 확장성을 갖고 좀 더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 사업계획(안) 수정 방향 검토 : 사업계획 조정에 관한 내용은 컨소시엄 단체 협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